

# 영미권의 지지(地誌) 연구

홍금수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 1. 서언

지지학은 地域地理學(regional geography)으로 달리 표현되는데, 특정 지역을 지형, 기후, 생물 같은 자연적인 현상과 교통, 취락, 경제, 인구 등의 인문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지역성을 규명하는 분야라고 하겠다. 地誌는 땅을 기술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용어로서 지리학(geo-graphy)의 출발과 맥을 같이한다. 근대지리학의 발상지인 독일의 경우 地誌博物館(Museum für Landeskunde, Leipzig, 1892)과 地誌研究室(Institut für Landeskunde, Zentralarchiv für Landeskunde von Deutschland, Bad Godesberg, 1882)을 운영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風土記라는 이름의 다양한 지지서가 오래 전부터 편찬되어 왔으며 공식적인 연구기관으로 日本地誌研究所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한국지역지리학회가 발족되어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을 뿐이며, 지지연구가 오랜 기간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방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의 지지연구 전통과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의 4개국을 대상으로 國家誌 수준의 연구전통, 동향, 출판물의 작성 체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지지연구의 전통

지리적 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밝혀내고 그들 사이의 인과론적인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해서 구조와 원리를 찾아내는 계통적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소의 복합으로 파생되는 지역 전체의 현상을 일괄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지리의 방법인데, 지지는 바로 후자에 해당한다. 地誌學은 系統地理學(一般地理學)과 함께 지리학의 2대 연구 전통을 형성하며 特殊地理學 혹은 地域地理學이라는 별칭을 가진다. 지방 혹은 지역에 대한 기록은 정치·군사적 필요에 의해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자연과 인문현상의 종합인 地誌가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가까운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근대지리학의 출발점과 일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조사의 토대는 근대지리학의 창시자로 인정되는 홀볼트와 리터에 의해 마련되었고, 라첼과 블라우의 손을 거쳐 뼈대가 완성되었으며, 이후 각국의 여러 대학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학자의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종합적인 지역연구는 독일의 리히트호펜(1833-1905)에 의해 地域誌(chorographie)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전통이 수립된다. 그의 지역지는 헤트너(1859-1942)의 地誌學(länderkunde)으로 맥이 이어진다. 헤트너는 장소의 外觀보다는 지리적 現象에 비중을 두고 먼저 자연과의 관계를 묻은 다음 현상 상호간의 인과론적 관계를 밝혀 장소의 本質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질, 지세, 기후, 자연자원, 동물학, 취락 등의 지역구성 요소를 가정한 地誌圖式(länderkunde schema)을 고안하였는데, 물적기반에 다소 비중을 두었다.

영국의 지역연구는 스코트랜드 출신의 기디스에 의해 초석이 놓이고 이후의 지역연구 전통은 허버트슨, 플레어, 언스테드, 락스비, 다비 등으로 이어져 지형·식생·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생활경험에 기초한 지역구분으로부터 과거지리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분야를 개척하였다. 한편, 미국의 근대지리학은 환경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태되었다. 특히 사우어는 문화경관 중심의 문화지리학의 기틀이 마련하였으며, 시간 개념이 역동적인 지리학을 구축하는 관건이라 여기고 이를 역사지리학으로 정립하였다. 사우어는 또한 地誌로 관심을 돌려 놓은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지표의 특정 영역은 독자적인 '個性(personality)'을 갖는다고 피력하였는데,

토지와 인간의 동적인 통합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지리학은 지역의 성격을 파악해내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지리학이 지역의 종합적 연구를 최종의 목표로 하는 地域地理 혹은 地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인물로는 위틀지, 프랫, 페너맨, 제임스 등이 있다. 페너맨은 특히 地理學의 領域을 도식으로 표현하면서 천문학, 지질학, 기상학, 생물학, 경제학, 역사학 등 인접 학문이 지리학과 접목되어 수리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생물지리학, 상업지리학, 정치지리학의 계통지리로 분화되며 이들 하위분야의 종합으로 지리학이 성립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리학은 정확하게는 地誌였던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방법론으로 확립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핫손이었다. 그는 헤트너가 주장했던 地誌的 科學을 지리학의 정통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핫손은 계통지리가 物理(기후학·지형학), 生物(생물지리·인류지리), 社會(경제지리·문화지리)의 세 하위체계로 구성되는 데 반해 지지는 지역 그 자체 혹은 지역의 개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둔다고 설명하였다.

영미권의 지지연구는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고유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실질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기존의 계통지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을 발굴하기 위한 현지답사를 병행하면서 짜임새 있는 지역연구를 축적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국가지로 편찬되었다.

### 3. 영미권의 지지연구 동향: 國家誌의 편찬을 중심으로

지지연구는 조사하려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鄉土誌, 地方誌, 國家誌, 大陸誌, 世界誌의 네 영역으로 나뉜다. 지역연구의 취지를 홍보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결과물을 출판하는 데, 본 고에서 의도하는 영미권의 지지연구 추세 역시 출간된 서적을 통해서 그 대략을 확인 할 수 있다. 역대로 역사, 지리, 언어는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회적인 분열상이 심화될 때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여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으며, 國家誌 편찬에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지기 마련이었다.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 학교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이전에는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교수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지리서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역관련 지식을 제공하였다. 1789년에 「미국지리」를 기술한 모스의 경우가 그렇지만 초창기 지지서를 집필한 인물 가운데에는 성직자가 많았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지지서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전문적인 지리학자가 저술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체제도 다양해지는데, 무엇보다도 양적인 성장이 눈에 띈다. 지리지 편찬의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1880년에서 2002년까지 편찬된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4개국의 지리지 편수를 헤아려 보았다. 서적에 대한 정보는 케임브리지대학, 옥스퍼드대학, 텍사스대학, 루이지애나주립대학, 버클리대학, 위스칸신대학의 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통해 추출하였다. 단일 도서의 경우 개정판은 별도의 도서로 계산하였지만 단지 판수만 달라진 도서에 대해서는 초판만을 고려하였다. 도서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상 기간동안 편찬된 지리서는 북미지역 168편과 영국·아일랜드에 관한 63편을 합해 총 231편으로 집계되었다(그림 1). 여러 가지 제약으로 대상시기에 쓰여진 서적을 망라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유명 기관에 소장된 도서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표본으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하겠다.

19세기초부터 20세기말까지의 시기별 추이를 분석해보면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넘기면서 지지서의 편찬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후 사회적으로 안정이 회복되면서 학내의 지리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었으며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황변화가 지지서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간격으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180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는 해당 연대별로 10편에 못 미치는 국가지가 편찬되었으나, 이후로는 1920년대 13편, 1930년대 10편, 1940년대 13편, 1950년대에 20편, 60년대에 34편, 70년대에 32편, 80년대에 28편, 90년대에 35편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리학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종종 계량혁명의 와중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할 수 있었던 지리학의 분과로 문화·역사지리학과 함께 지역지리학을 꼽고 있는데, 조사결과에서도 그 점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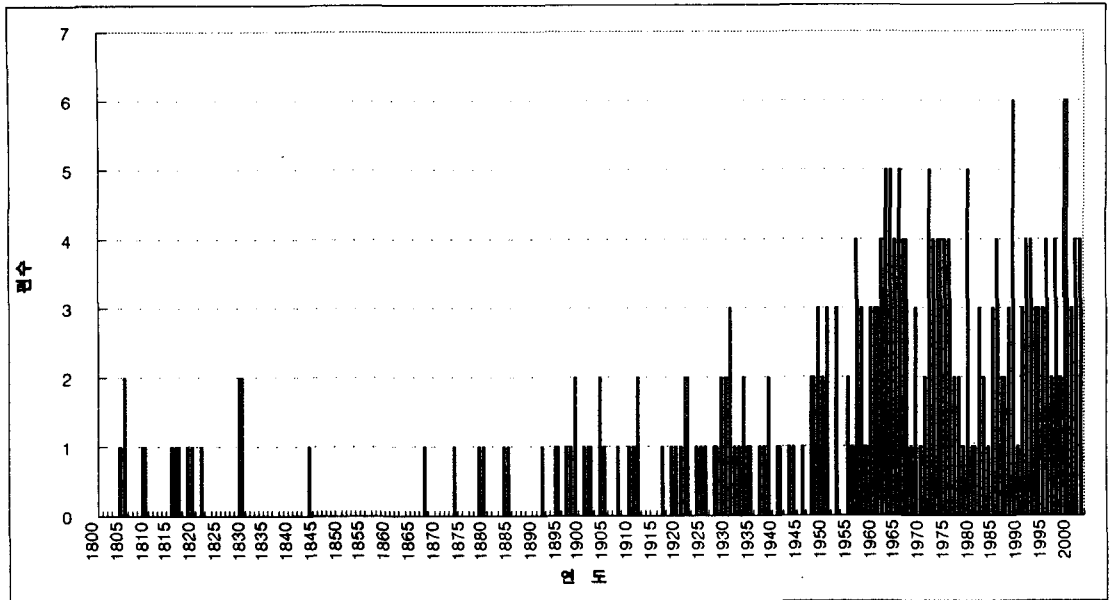


그림 1. 영미권의 국가지 편찬 추이, 1800-2002

영미권 전체적으로 근대교육의 영향으로 향토에서 국가 전체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지리지식이 초등학교에서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활동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특히 대학이 출범하면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읽혀지는 지지서는 미국과 같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자연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확인된 지지서 가운데 초기의 것은 환경에 대해 많은 비중을 할애했던 유형이 많아 지리학 발달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타 지역에 대한 방문기사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지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또 다른 사실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과거 중심의 기술에서 현실지향적인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나간 역사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국민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증거일는지 모른다. 국가지 구성의 스케일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신대륙에서 그 점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초기의 지지서에는 북미지리라는 표제를 내걸고 실제 다루는 내용은 미국과 캐나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점차 국경과 영토의식이 확립되면서 양국의 지지서가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쪽으로 이행하였다. 최근에는 광역의 지방지 단위로 국가지가 세분되는 추세에 있다.

#### 4. 전통적 지지구성 방식

앞서 살펴본 지지서를 분석해 보면 초기의 저작은 주로 각 지역을 탐방하고 사실을 소개하는 수준의 극히 단순한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여행기와 수필형식으로 작성된 것과 함께 교과서 형식의 것도 적지 않다. 지역의 개념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계통적인 제 현상간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지지서 작성이 본 궤도에 접어들게 되면 대체로 각 장의 배열과 수록된 내용이 저자와 관계없이 유사해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는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인문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집체계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는지 모른다. 인간생활의 무대가 되는 自然環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과과 관련해 지세, 기후, 식생, 토양, 하천 등에 대한 소개가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人口, 經濟活動, 聚落, 地域構造에 관한 인문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뒤를 잇는다. 전통적인 지지구성 방식은 신 지역지리 논의가 분분해지는 1980년대 이전까지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었다.

영미권의 지지는 대체로 總論과 各論으로 구성된다. 총론은 주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위에서 열거한 자연환경 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인문현상에 대해서는 계통지리 각 분야별로 한 개 장을 구성하여 서술된다. 북미지리의 고전으로 꼽히는 패터슨의 『북아메리카』 총론 부분을 보면 이상에서 설명한 전반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자연지리적 배경과 관련하여 자연지역구분, 빙하, 기후, 토양, 식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고 다음으로 인구에 대한 언급이 따라오는데, 원주민·백인이민·흑인의 인구구성, 인구분포, 도시화로 대표되는 인구이동 등을 각 절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그밖의 주요 주제로는 경제발전의 제도적 조건, 농업, 공업, 교통, 무역, 지역주의 등이 있다. 각론에서는 지역구분을 기초로 각 지방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지역을 나누는 방식에서 지시간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개중에는 각 지방의 위치를 감안해 방위가 기준이 되며, 지세와 하천유역을 활용한 자연지리적 구분, 정치·행정적인 구분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생활권이나 문화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별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 핵심·중주변·주변의 틀도 시도해볼 만하지만 아직은 이에 기초한 지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각 지방에 대한 설명은 저자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가의 형성과 관련해 상징성이 크거나 현재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로 군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여 농업 위주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으로 나아가는 방식과, 프런티어의 개척 시기를 반영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되는 두 가지 방향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적인 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면 과정보다는 패턴을 중시하며, 권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한정된 시각에서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평면적이라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정성적인 방법으로 일관하다보니 계량기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접근에서 선택적이고 때로는 차별적인 태도 역시 감지할 수 있다. 도시도 물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농촌과 농업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점도 이후의 지지서와 비교되는 점의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지지서를 만들어 낼 만한 편집과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지역지리학자가 부족하고,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흥미를 이끌어 낼 만한 내용과 체제를 갖추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지서가 단지 오래된 병에 새 와인을 담은 형식적인 변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리현상을 보는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 5. 지지구성 체제의 다원화

지역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지지는 집필이 이루어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복원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시간범위가 너무 커지면 현상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을 상실한 우려가 있다. 변화하는 지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방대한 분량의 지역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강구하고 도출된 결과를 참신한 방법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1980년대 들어 전통적인 지역지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학자를 중심으로 新 地域地理學이 힘을 얻게 되었다. 지역이해의 방식이 정태적인 기존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현상과약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이 운동의 요체는 세계체계론, 공간분업, 구조화이론 등 최근의 사회과학이론을 수용해서 지역을 새롭게 평가하자는 데 있다. 정치지리학자인 애그뉴가 경계했던 ‘영토의 함정(territorial trap)’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지역을 조망할 때 적실한 지역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역구조는 역동성을 내포한다.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존의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는 소멸하고, 새로운 요소는 끊임없이 추가되며, 형태와 기능의 변화 또한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시의 적절하게 구성해낼 수 있는 지지가 요구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비록 역사지리의 성격이 강하지만 마이닉이 총 4책으로 기획한 『미국의 형성』은 향후 지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지리적 특성·구조·체계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맥락·범위·스케일·조직·갈등·변화의 요소를 고려해 미국지리의 변용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존스톤이 편집한 『변화하는 영국의 지리』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지리를 새롭게 꾸며내 지지가 무작위인 종합에 불과하다는 점을 불식시키고 있다. 연구대상이 자연환경, 토지이용, 인구, 농업양식, 자원, 교통, 도시, 촌락, 정치, 여가, 환경보존 등 기존의 지지가 다루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역동적

인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참신성이 돋보인다.

최근의 지리지는 이와 같이 신 지역지리 논의에 힘입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계통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단순히 아우르는 차원을 넘어 각각의 장소에 담겨진 본질적인 특징을 구조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개방적인 세계체제의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지역지리의 변화를 지역 내외의 요인을 종합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新地誌는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단순한 종합의 차원을 뛰어넘어 분석적인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 형태에 대한 관심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여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지향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량적인 분석도 과감히 수용하고 있다. 요인간의 연계성을 밝혀내기 위해 '체계'를 강조하며, 현대생활의 중심인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서술의 범위와 분량이 아직 미진한 감은 있지만, 원주민·흑인·여성 등의 존재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사실에서 차별성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최근의 지지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면 경관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 6. 결론

지역연구는 독일에서 토대가 마련된 이후 프랑스와 영미권을 거쳐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지리학이 체계화되면서 지역에 대한 접근방식과 인식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역연구의 결과물인 지지서에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미권의 지지연구 동향과 국가지의 성격을 분석하여 지역연구의 방향을 진단해 보고 향후 한국지리지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논의를 통해 신 지역지리에서 제기한 이론적인 측면을 반영한 계통지리 분야의 성과를 대폭 수용하는 한편, 지지학 내에서 자체적인 변화의 자세를 견지할 때 지리학 발전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론과 실체가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지지서도 그러한 바탕 위에서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손명철, 2002, 근대 사회이론의 접합을 통한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방법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 150-160.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 557-574.
-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 131-149.
- 能登志雄, 1967, 地誌學, 木內信藏·西川治 編, 地理學總論, 朝倉書店, 176-210.
- 木內信藏, 1976, 地域概論: その理論と應用, 東京大學出版會.
- 青野壽郎, 1972, 地誌學, 日本地誌研究所 編, 地理學辭典, 二宮書店, 477-478.
- Claval, P., 1998, *An Introduction to Regional Geography*, Blackwell.
- Entrikin, J.N. and Brunn, S.D., 1989, *Reflections on Richard Hartshorne's The Nature of Geography*, Occasional Publication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Guelke, L., 1977,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29, 1-7.
- Johnston, R.J. and Gardiner, V., eds., 1991, *The Changing Geography of the United Kingdom*, Routledge.
- Johnston, R.J., 1997, *Geography and Geographers*, London: Arnold.
- Livingstone, D.N., 1992, *The Geographical Tradition*, Blackwell.
- Meinig, D.W., 1993-1998, *The Shaping of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urphey, R., 1982, *The Scope of Geography*, 3rd ed., New York: Methuen.
- Patterson, J.H., 1970, *North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gden, D. and Hamilton, P., 1971, *Scale, Systems and Regional Geography*, *Area* 3, 139-144.
- Taylor, P.J., 1998, *World-Systems Analysis and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 259-265.